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6만명 돌파

구직급여 수급자도 나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따라 작년 12월부터 적용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8개월 만에 6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6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지난 11일 기준 총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예술인, 올해 7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2%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이었다. 60대는 2.9%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5%로 압도적으로 높아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 지역이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한 사업장 2909개소를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없이 예술인만 가입한 사업장이 대다수(61.5%)를 차지했다. 이어 근로자 1~4명(18.0%), 5~29명(13.9%), 300명 이상(5.2%) 순이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8개월이 지나면서 구

직급여(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예술인들도 나오고 있다. 구직급여 13명, 출산전후급여 5명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향후 가입자와 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고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망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변주승 신현석 윤미용 김성진

국립민속국악원, 8월 국악콘서트 '다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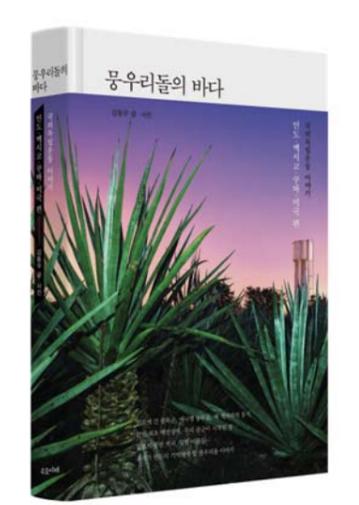
18·25일 예원당서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오는 8월 18일과 25일 수요일 오후 2시 예원당에서 진행한다. 18일은 변주승 고전번역학자가 출연해 '고전속 역사 읽기'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호남지역의 대표 한학자인 아버지 산암(山巖) 변시연(邊時淵) 선생에 대한 추억, 오랜 시간 고전번역 작업을 통해 완성한 '여지도서'와 '추안급곡안'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눈다. 더불어 해금 연주자 신현석의 진도씻김굿을 주제로 작곡한 '흔들림', 해금병창 등 일상에

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공연의 분위기를 더한다. 25일은 가야금 연주자이자 예술 행정가, 교육자로 활동한 윤미용 국악인이 출연해 '국악과 인생 이야기'를 주제로 소박한 삶의 이야기와 예술 철학을 들려준다. 김영운 명인에 대한 일화, 함동정월 명인과의 추억, 교육자와 국악 행정가로 활동했던 시절의 경험담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진의 피리 연주로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선착순 150명)로 진행하며,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리가 몰랐던 국외 독립운동... 김동우 '몽우리들의 바다'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된 백범(白凡) 김구에게 일본 순사는 "지주가 전답의 몽우리들을 골라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며 협박한다. 그러나 김구는 이 말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며 "오냐, 나는 죽어도 몽우리들 정신을 품고 죽겠고, 살아도 몽우리들의 책무를 다하리라"라고 답한다. '몽우리들'은 '몽글몽글하게 생긴 큰 돌'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김구는 백범일지에 왜놈들이 자신을 '몽우리들'이라 불렀고 또 자신과 같은 독립투사들을 '몽우리들'이라고 표현했다고 썼다. 독립운동의 상징인 썬이다. 사진가 김동우(42)가 세계 각지 흩어진 '몽우리들'들의 독립운동 흔적을 발굴하고 기록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서적 '몽우리들의 바다-국외 독립운동이야기 인도·멕시코·쿠바·미국편'을 출간했다. 김익주, 이근영, 이종오, 김세원, 임천택, 호근덕, 이운상, 배경진, 김종립, 김형순, 장인환, 전명운, 황기환, 이우석... 이 책에 나오는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은 생소하다. 배우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교과서 밖에서 마주한 몽우리들의 역사이기 때문이



다. 저자는 "일제가 남김없이 골라내려고 했던 몽우리들은 비단 상해와 민주,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닌, 전 세계 곳곳에 굳건히 박

혀있었다"고 전한다. 책에는 독립운동의 현장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이야기들을 저자가 촬영한 사진과 함께 풀어놓는다. 저자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 신문사 기자로 일하다 행복을 찾아 과감히 사표를 던졌다. 전 세계를 돌며 여행자의 삶을 살던 중 인도 델리 레드포트가 한국 광복군 훈련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독립운동가의 삶에 사로잡혀 그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 중국, 인도, 멕시코, 쿠바,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10개국 이상의 독립운동 사적지와 후손들을 취재해 사진집 '몽우리들을 찾아서' (2019)를 출간했다. '몽우리들의 바다'는 그가 사진집을 출간한 이후, "사진에 담긴 현장의 이야기도 알려 달라" 독자들의 요구에 상세히 화답하는 책이다. 그는 이 작업을 위해 발품을 판 것만이 아닌, 집도 팔았다. 가족이 동의해 가능한 일이었다. "포기하지 않았던 조상들에게 진 부채를 갚기 위해서라도, 잃어버렸던 역사를 돌아보고 기억해야한다. 마땅히 해야만 하는 21세기 독립운동"이라고 말한다. /뉴시스

송혜교·서경덕, 뉴욕 한국문화원에 '독립운동 역사 안내서' 기증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뉴욕 편'... 뉴욕에서의 독립운동사 소개

배우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광복절인 지난 15일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에 독립운동 역사 안내서 1만 부를 제작해 기증했다. 이번 안내서는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뉴욕 편'으로, 세계 도시별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 안내서 기증 캠페인의 하나로 제작됐다.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등에 이어 6번째 기증이다.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제작됐고 전면컬러로 제작됐다. 뉴욕에서의 독립운동사를 소개한다. 안내서에는 뉴욕 3·1운동 기념행사 개최지(타운홀), 대한민국민회 뉴욕지방회관 터, 뉴욕 한인교회, 뉴욕 인터내셔널 하우스, 마운트 올리베 공동묘지 등이 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다. 서 교수는 "안내서가 한류의 영향을 받은 외국인과 재미동포, 유학생들이 뉴욕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에 남아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들의 상황도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뉴욕 독립운동사 안내서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신규 문화예술교육 개발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27일까지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에 나섰다. 지난 13일 재단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2021 신규 문화예술교육 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와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규 문화예술교육 개발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 함양을 위해 과학·기술·매체와 지역 특성 및 이슈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젝

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1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와 기관은 재단 홈페이지(jbc.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지원지도 시스템(jctedu.com)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문화예술교육팀(063-230-746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